



제2회 무주·진안·장수 장애인 보치아 대회 개최

장수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지난 8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장애인 30명이 참여하여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제2회 무주·진안·장수 장애인 보치아 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스포츠이자 패럴림픽 공식 종목인 보치아 경기를 통해 무주, 진안, 장수 지역 장애인들이 교류하여 건강 및 재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진행되었다. 이날 각 지역별 3명씩 3팀, 총 9팀이 참여하였으며,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였으며, 1등 진안, 2등 무주, 3등 진안 지역이 수상했다.

이중국 장수군장애인복지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무주, 진안 지역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고, 이런 게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호영 관장은 "제2회 무주·진안·장수 장애인 보치아 대회를 장수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고, 스포츠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 축제 대비 실종대응 강화 합동 교육훈련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고, 여성청소년계)는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보호 및 실종대응 강화를 위한 축제장 내 실종예방지침(코드아йд) 관련 미아보호소, 종합안내소, 출입구위치 등 현장점검과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й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담 윌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이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미아보호소 운영, 신고접수 요령,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통제 및 감시 수색 절차 등 처리지침 여부 점검하고 미비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서, 하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11일 소회의실에서 각 실·과장,계·팀장 및 파출소장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하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무주군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 실적과 성과 달성도를 돌아보고, 부서별 중점 추진업무와 향상 방안이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남기재 무주경찰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향상을 위한 활발한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1호 명장, '대한민국 명장' 됐다

서선민 대표, 전북도 최초 미용분야 선정 영예

2020년 정읍시 1호 명장으로 선정된 서선민 대표(서선민 헤어)가 전북도 최초 미용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갖고ढ़아 자신의 분야를 빛낸 대한민국 명장 16명과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 전수자 5명 등 98명을 선정했다. 서 대표는 미용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 대표는 1987년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해 27세(1995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서선민 헤어를 창업하고 36년간 미용업에 종사해왔다.

지난 2001년에는 M.C.B 세계대회 국가대표 출전, 2004년 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등의 성과를 이루고, 대회 참가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논문, 교재, 특허, 실용 디자인 등록 등을 통한 기술 전수로 후진양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미용 기술을 활용한 요양원, 경로당, 군부대 방문 재능기부 활동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 정읍 장학금 장학금 지원 등의 기부활동도 펼쳐왔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최초 1호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읍시 명장 선정 산업을 통해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해 장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상전면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진안군 상전면(면장 이육순)은 지난 7일 제22회 상전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상전면은 이날 상전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갖고 애향장 송진호(64·서울특별시), 효열장 김성실(51·원가막마을), 공익장 이정희(67·문화마을)씨 등 3개 부문 3명을 수상자로 선발했다.

애향장에 선정된 송진호 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재경향우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경향우회 화합과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효열장에 선정된 김성실 씨는 7년 전 쓰러진 부친을 간호하기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고향인 상전면에 귀향한 후 형제들을 대신해 3년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떠맡아 왔으며,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머니까지 4년째 병간호를 하고 있어, 모든 면민들의 귀감이 되고, 주변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여 효열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익장에 선정된 이정희 씨는 3년째 상전면 문화마을 이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애향장 송진호, 효열장 김성실, 공익장 이정희

특히 해마다 상전면민의 날 행사 지원과 상전면 체육회 발전을 위해 고액의 후원금 지원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후원금 지원의 공로가 인정되어 공익장에 선정됐다.

이육순 상전면장은 "이번 제22회 상전면민의 장으로 선정되신 세 분께 축하를 드리고, 상전면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신 세 분의 수상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면민의 장은 오는 10월 7일 '제22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산외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열려

정읍시 산외면(면장 이병택)은 지난 9일 산외초등학교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산외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산외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경기, 축하공연,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의 순서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영영선 전북도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12명의 모범주민 및 출향인에게 면민의 장, 감사패, 표창장이 수여됐다. 특히, 지난 8월 고인이 된故김환중 씨에게 산외면민의 장 공익장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무대에서 펼쳐진 이벤트 경기에서는 산외초, 산외중 학생들이 플라후프, 줄넘기 경기를 펼쳤고, 축하공연은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난타, 라인댄스 공연에 이어 평양예술공연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으로 면민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 오수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축제 열려

오수면이 제31회 오수면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축제를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인 지난 9일 오수 의정공원에서 풍성하게 개최했다.

이날 심민 군수를 비롯한 이성재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 각 기관 사회단체, 면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진 필봉농악의 흥겨운 가락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라인댄스, 플라후프) 공연, 장수상 시상, 민속경기, 축하공연, 면민 노래자랑 등으로 이어졌다.

장수상은 4명의 어른신이 가족과 함께 무대로 올라와 환하게 웃으며 수상했다. 또한 면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기부제와 내달 개최되는 임실치즈축제를 홍보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올해 두번째 기부

김제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인삼아빠 김태업 대표는 11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홍삼액 10포 50box와 인삼식혜 200병 등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태업 대표는 "올해 무더운 여름 홍삼식혜 매출이 매우 좋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해도 두번째 홍삼액과 인삼식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인삼아빠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6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